

피노키오 역설에 대하여

송 하 석

【국문요약】 엘드리지-스미스가 제시한 피노키오 역설은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의미론적 역설의 변형이지만, 의미론적인 술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언어의 위계를 이용하여 의미론적 역설을 해결하려는 타르스키의 해결책이나, 진리 술어를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보고 거짓말쟁이 문장에 대해서 진리 틈새를 인정하는 크립케의 초완전성 견해는 피노키오 역설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피노키오 역설을 통해서 양진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엘드리지-스미스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음과 함께 이 역설의 중요한 함축은 진리 술어에 관한 규칙이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이 역설에 대한 적절한 진단은 이 역설을 낳는 피노키오 원리가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점은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의미론적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리 술어에 대한 규칙이 비일관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피노키오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진리 일관성주의적 해결책은 성공할 수 없고 진리 비일관성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의미론적 역설, 초일관성주의, 의미론적 양진주의, 형이상학적 양진주의, 진리 비일관성주의, 엘드리지-스미스, 불

1. 들어가는 말

엘드리지-스미스(P. Eldridge-Smith)가 제시한 피노키오 역설(Pinocchio paradox)¹⁾이란 다음과 같은 피노키오 원리(Pinocchio principle: 이하 PP)와 피노키오 진술(Pinocchio statement: 이하 PS)에 의해서 발생한다.

(PP)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피노키오의 코가 커진다.

(PS) “내 코가 커진다.”

(PP)가 성립하고, 피노키오가 (PS)를 발화할 경우 역설이 발생한다. (PS)를 참이라고 할 경우, 피노키오는 참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PP)에 의해서 피노키오의 코는 커지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PS)는 거짓이 된다. 또한 (PS)를 거짓이라고 할 경우, 피노키오는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PP)에 의해서 코가 커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PS)는 참이 된다. 결국 “피노키오의 코가 커진다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피노키오의 코는 커지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를 형식화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text{Tr}(\langle \text{PS} \rangle)$ (가정)
2. $\text{Tr}(\langle \text{PS} \rangle) \leftrightarrow$ ‘피노키오의 코는 커지지 않는다.’ [(PP)의해서]
3. $\text{Tr}(\langle \text{PS} \rangle) \leftrightarrow$ ‘피노키오의 코는 커진다.’ [Tr-추론에 의해서]

1) 피노키오의 역설은 엘드리지-스미스가 2010년 자신의 딸, 베로니카가 거짓말쟁이 역설의 다른 버전으로 제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Eldridge-Smith & Eldridge-Smith (2010)을 볼 것.

4. ‘피노키오의 코는 커진다.’ \leftrightarrow ‘피노키오의 코는 커지지 않는다.’
[2,3에 의해서]
5. $\text{Tr}(\langle \neg \text{PS} \rangle)$ (가정)
6. $\text{Tr}(\langle \neg \text{PS} \rangle) \leftrightarrow$ ‘피노키오의 코는 커지지 않는다.’ [Tr-추론에 의해서]
7. $\text{Tr}(\langle \neg \text{PS} \rangle) \leftrightarrow$ ‘피노키오의 코는 커진다.’ [(PP)의해서]
8. ‘피노키오의 코는 커진다.’ \leftrightarrow ‘피노키오의 코는 커지지 않는다.’
[6,7에 의해서]

이 글의 목적은 피노키오 역설이 다른 의미론적 역설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그 역설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피노키오 역설이 거짓말쟁이 역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기존의 해결책들이 피노키오 역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피노키오 역설이 최근 의미론적 역설의 해결방안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초완전성(para-completeness) 견해와 초일관성(para-consistency) 견해에 대해서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엘드리지-스미스는 피노키오 역설을 통해서 양진주의(dialetheism)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와 불(J. C. Beall) 사이의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논쟁에 대해서 평가해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노키오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의미론적 역설을 진리술어가 일관적이라는 견해를 유지하면서 해결하려는 진리술어 일관성주의자들의 해결방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의미론적 역설과 관련하여 진리술어에 관한 규칙이 비일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임을 논증할 것이다.

2. 피노키오 역설의 함의

피노키오 역설은 거짓말쟁이 역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역설에는 의미론적 술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피노키오의 코가 커짐’은 의미론적 사실이 아니라 물리적 사실이다. 또한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 그의 코가 커진다고 할지라도 그 두 사실 사이의 관계는 “인과적이거나 어떤 다른 성질을 갖는다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의미론적인 관계는 아니다.”²⁾ 피노키오 역설이 이러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대상언어와 메타언어를 구별하여 대상언어에서 의미론적 술어를 배제함으로써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려는 타르스키 식의 해결책은 피노키오 역설에는 적용될 수 없다. 언어의 위계를 통해서 피노키오 역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커진다’와 같은 경험적 술어도 대상언어에서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피노키오 역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적인(*ad hoc*) 방안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노키오 역설과 같은 유사한 문제는 얼마든지 구성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관련된 경험적 술어를 제한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³⁾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크립케 방식의 초완전성주의도 피노키오 역설을 해결하기 어렵다.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크립케의 해결방안은 기반을 가짐(*groundedness*)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상적인 문장이 어떻게 진리값을 부여받고, 왜 병리적인 문장이 진리값을 부여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한다. 진리 개념을 포함하는 진술에 대하여

2) Eldridge-Smith & Eldridge-Smith (2010), p. 213.

3)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그립자이다’나 ‘~모임의 비서이다’와 같은 술어도 특수한 상황에서 모순을 낳을 수 있다.

하나씩 진리값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진술, 즉 기반을 가진 모든 진술에 대하여 진리값을 부여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은 유한한 과정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기반을 가진 모든 진술의 진리값이 결정되는 시점을 크립케는 최소 고정점(minimal fixed point)이라고 한다. 요컨대 어떤 진술이 최소 고정점에서 진리값을 갖는다면 그 진술은 기반을 가진 진술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진술은 기반을 지니지 않는 병리적인 진술이다. 그런데 거짓말쟁이 문장은 최소 고정점에서 진리값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장이고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크립케는 진리 술어를 부분적으로 정의되는(partially defined) 술어라고 보고, 따라서 그의 진리론은 진리값의 틈새(gap)를 인정한다.⁴⁾

피노키오 진술(PS)에 사용되는 술어, ‘[~의 코는] 커진다’는 경험적 술어로서 완전하게 정의되는(fully defined) 술어이다. 따라서 피노키오 진술에 대해서는 참 또는 거짓의 값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 (PP)가 성립하고 피노키오에 의해서 (PS)가 발화된 가능세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가능세계에서 피노키오의 코가 커진다면 피노키오 진술, (PS)는 참의 외연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피노키오의 코가 커진다.”는 참이다.’도 또한 참의 외연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피노키오의 코가 커진다.’는 피노키오 진술이 참이 아니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피노키오의 코가 커진다.”는 쌍조건문은 거짓이 되고, 이는 우리가 이 가능세계에 대해서 참이라고 가정했던 것과 모순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노키오의 코가 커지지 않는다면, 그의 진술, (PS)는 참의 반외연에 속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노키오의 코가 커진다.”는 피노키오 진술은 거짓인데, 그렇다면 (PP)에 의해서 피노키오의 코는 커져야 한다. 그러므로

4) 크립케의 진리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ripke (1975)를 참고할 것. 그리고 크립케 식의 초완전성주의를 발전시킨 모드린(T. Maudlin)의 견해에 대한 비판은 송하석 (2013)을 참고할 것.

“‘피노키오의 코가 커진다.’는 피노키오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 피노키오의 코는 커진다.”는 쌍조건문이 참이 되어 모순이 발생한다. 요컨대 피노키오 진술 (PS)는 크립케 식의 최소 고정점에서 진리값이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기반을 갖지 않은 (ungrounded) 문장이다. 그러므로 크립케 식의 초완전성 견해는 ‘[~의 코는] 커진다’는 술어도 완전히 정의되는 술어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점에서, 피노키오 역설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엘드리지-스미스는 피노키오 역설을 통해서 참인 모순이 존재한다는 양진주의적 견해도 비판한다. 그의 양진주의에 대한 비판을 평가하기 앞서, 의미론적 양진주의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미론적 양진주의는 세계가 비일관적인 것이 아니라 비일관성은 세계와 언어 사이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반면에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는 실제 세계에 비일관적인 사실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의미론적 양진주의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 모두 참인 모순이 있다(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둘의 차이는 이러한 모순의 지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썸이다. 마스(E. Mares)가 옹호하는 의미론적 양진주의는 의미론적인 술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술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과잉정의 되기도(over-defined) 한다는 점에서 진리 틈새(truth-gap)와 진리 과잉(truth-glut)을 인정하는 논리체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논리체계가 바로 의미론적 초일관주의(semantic para-consistentism)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그의 의미론적 양진주의의 핵심적 주장은 어떤 세계에도 모순이 실재할 수는 없지만, 세계를 일상언어로 기술할 때 모순이 등장한다는 것이다.⁶⁾

5) 크룬(F. Kroon)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라는 용어 대신 실재론적 양진주의(realist dialetheism)라는 표현을 쓴다. Kroon (2004) 참조.

6) 마스는 초일관주의를 인식론적 초일관주의(doxastic para-consistentism), 의미

불의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에 따르면, 참인(거짓인) 문장과 사실(fact)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응이 있다. 따라서 참인 모순이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사실도 존재해야 한다. 불은 사실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한다.

$$\langle r_n, d_1, d_2, \dots, d_n, i \rangle$$

여기서 r_n 은 n -항 속성으로 속성과 관계들의 집합 R 의 원소이고, d 는 개별자들로 개별자들의 집합 D 의 원소이다. 그리고 i 는 긍정(1)과 부정(0)을 뜻하는 극성(polarity)을 나타낸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_n(c_1, c_2, \dots, c_n)$$

여기서 p_n 은 n -항 술어이고, c_1, c_2, \dots, c_n 은 단칭용어를 나타낸다. 그리고 $\delta(p_n)$ 는 R 의 원소이고, $\delta(c_j)$ 는 D 의 원소라고 하자. 그러면 위 문장이 참이라 함은 $\langle \delta(p_n), \delta(c_1), \delta(c_2), \dots, \delta(c_n), 1 \rangle$ 이 사실일 때이고, 이 문장이 거짓이라 함은 $\langle \delta(p_n), \delta(c_1), \delta(c_2), \dots, \delta(c_n), 0 \rangle$ 이 사실일 때이다.⁷⁾ 불의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참(거짓)인 문장과 사실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응이 존재한다. 불은 하나의 문장과 그 문장의 거짓이 동시에 참일 수 있으며, 동일한 세계에서 어떤 긍정적인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부정적 사실이 동시에 얻어질

론적 초일관주의(semantic para-consistentism), 그리고 형이상학적 초일관주의(metaphysical para-consistentism)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식론적 초일관주의는, 우리는 물론 과학자들조차도 때로는 비일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비일관적인 믿음이나 이론을 다룰 수 있는 논리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Mares (2004), pp. 264-266.

⁷⁾ Beall (2000), p. 265.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불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매우 분명한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의 버전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문장과 그것의 부정이 동시에 참일 수 있으며 각각의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불은 모순을 범하지 않고는 세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술할 수 없고, 만약 어떤 사실과 그 사실의 부정의 연합이 동시에 얻어지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술은 어떤 것도 적어도 하나의 사실을 기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의미론적 양진주의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의 핵심적인 차이는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참인 모순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하는 세계의 어떤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일관된 언어로는 세계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미론적 양진주의자는 세계에 모순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참인 모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엘드리지-스미스가 피노키오 역설을 통해서 주요한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미론적 양진주의이고, 불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를 옹호하지만 엘드리지-스미스의 의미론적 양진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의미론적 양진주의를 옹호할 수 있다고 본다.⁸⁾ 즉 엘드리지-스미스에 따르면, 피노키오 역설은 의미론적 역설에 대해서 의미

8) 필자는 초고에서 엘드리지-스미스가 피노키오 역설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한 타겟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오해였다. 초고의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해주었다.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불이 Beall (2011)에서 엘드리지-스미스의 의미론적 양진주의에 대한 비판에 답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는 Beall (2000a), Beall (2000b), 그리고 Beall & Colyvan (2001) 등에서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의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불의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경험세계에서 모순이 발견될 수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론적 양진주의가 제공하는 해결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버전의 의미론적 역설에 해당한다. 엘드리지-스미스는 의미론적 양진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미론적] 양진주의자들은 ‘폭발’, 단 하나의 모순이 참이면 모든 것이 참이 된다는 논리적 전염병을 약삭빠르게 피한다. 양진문장은 그들의 의미론 속에 있고 적절한 초일관성 논리에 의해서 유지된다. 약삭빠른 양진주의자들은 형이상학적 모순은 믿지 않고 단지 의미론적 모순만 믿는다. (...) 열려진 문에 양쪽 다리를 벌리고 서면 방 안에 있음과 방 안에 있지 않음이 가능하다. 그들에게 이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대한 모순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다. ‘방안에 있음’은 경험적 술어인 반면, 그들이 서 있는 곳에 대한 모순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지 않음이라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⁹⁾

다시 말해서 의미론적 양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한 발은 방 안에 다른 발은 방 밖에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경험적 물리 세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그러한 물리적 사실을 언어로 기술할 때 모순이 등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엘드리지-스미스는 이런 의미론적 양진주의가 피노키오의 역설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 피노키오의 역설은 그러한 해결에 저항하는 거짓말쟁이 역설의 버전이다. 피노키오의 역설은 (...) ‘나의 코가 커진다’는 피노키오의 진술이 참이라는 사실에 의존한다. ‘커진다’는 경험적인 술어이지 의미론적인 술어가 아니다. 더욱이 피노키오의 코가 커지고 동시에 커지지 않는지 여부는 단순히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피노키오의 코가 커지면서 동시에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인 모순이라면 그러한 세계는 단순히 의미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¹⁰⁾

⁹⁾ Eldridge-Smith (2011), p. 1.

다시 말해서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발생하는 사태는 어떤 사람이 한 발을 방 안에 다른 발을 방 밖에 두고 있는 사태와 달리 그 사태에 대한 해석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커짐’과 ‘코가 커지지 않음’이라는 실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드리지-스미스의 비판에 대해서 붙은 피노키오의 역설이 의미론적 양진주의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될 수 없음을 이발사의 역설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발사의 역설을 생각해 보자. 양진주의자들이 왜 스스로 면도하면서 동시에 면도하지 않는 이발사와 관련된 모순에 개입하지 않는가? 그 대답은 그러한 이발사는 단지 허구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모두 면도해주는 이발사를 갖는 것은 오직 **그 이야기에 따를 경우**뿐이다.¹¹⁾

이발사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붙은 피노키오의 코에 대한 진술의 참에도 “피노키오에 관한 이야기에 따르면”이라는 연산자(operator)가 붙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피노키오의 코가 커지면서 동시에 커지지 않는 경우는 오직 그 피노키오의 이야기에 한에서이다. 허구적인 이야기에서 참인 사실이 어떻게 실제 세계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기술되는 세계가 실제로 있는지는 물론 논쟁적일 수 있다. 비의미론적인, 형이상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과 피노키오 역설과 같은 기이함이 발생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양립가능하다는 것이 붙의 견해이다. 요컨대 모순의 형이상학적 실재성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참인 모순을 의미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론적 양진주

¹⁰⁾ Eldridge-Smith (2011), p. 2.

¹¹⁾ Beall (2011), p. 690. (강조는 붙 자신이 한 것임)

의는 피노키오 역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엘드리지-스미스의 비판에 대해서, 볼은 의미론적 양진주의자들이라면 피노키오 역설이 낳는 모순은 단순히 허구적일 뿐인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발사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자.

- (1)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서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모두 면도해주는 이발사가 있다.

(1)을 형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ists y)(\forall x)(Ryx \leftrightarrow \neg Rxx) \quad (Rab: a는 b를 면도해준다)$$

그런데 위 정식은 일차 술어논리에서 모순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발사는 현실세계에서나 가능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 러셀의 역설은 형식적으로 볼 때 피노키오 역설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엘드리지-스미스에 따르면, 피노키오 역설은 하나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발사의 역설과 다르다. 물론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일상적인 물리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허구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을 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코가 커지는 사람이 있는 가능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한 가능세계에서 즉, (PP)가 참인 세계에서, 피노키오가 (PS)를 발화한 경우에 발생한다. 피노키오 진술, (PS)도 자기모순적인 진술이 아니다. 결국 (PP)가 성립하는 세계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세계이지만, 거기에 (PS)가 발화되는 순간 모순이 발생하여, 비일관적인 세계가 되고 만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모순의 존재에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모순은 의미론에만 있다는 의미론적 양진주의는 피노키오의 역

설을 해결하기 위한 옳은 방안일 수 없다는 것이 엘드리지-스미스의 비판이다.

불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들이 이발사의 역설을 낳는 문장을 발화하는 이발사의 존재에 개입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러한 이발사는 ‘X의 이야기에 따르면’ 존재하는, 즉 허구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피노키오의 이야기에 따르면’ (PP)와 (PS)는 모순을 낳지만 의미론적 양진주의자들이 그러한 모순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에 엘드리지-스미스는 (PP)와 (PS) 각각은 일관적이고 따라서 (PP)가 성립하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세계에서 (PS)가 발화되는 순간 그러한 세계는 더 이상 일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피노키오 역설의 진정한 함의

피노키오 역설이 언어에 위계에 의존하여 의미론적 역설을 해소하려고 하는 타르스키 방식이 성공적이지 않으며, 크립케 스타일의 초완전성주의적 해결책도 만족스럽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엘드리지-스미스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피노키오 역설 자체가 의미론적 양진주의를 성공적으로 논박하는지 의심스럽다.

피노키오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을 갖는, 치하라(C. Chihara)가 제시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자.¹²⁾ 많은 모임이 그 모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서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모든 모임들이 그 모임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서는 그 모임의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자. 그래서 이러한 비서들이 자신들의 모임인 ‘비서연합’을 결성했다. 이 비서연합이라는 모임의 회원자격에 관한 규칙(RS)은 다음과 같다.

¹²⁾ Chihara (1979)에서 제시된 것이다.

(RS) 어떤 사람이 한 모임의 비서이면서 그 모임의 회원이 아니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그 사람은 비서연합의 회원이 된다.

그런데 비서연합의 회원이 증가하여 그 모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모임의 비서로 A씨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A씨는 어떤 다른 모임의 비서도 아니라고 한다면, A씨는 비서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RS)는 A씨를 고용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일관된 규칙이었다. 그런데 A씨를 고용하고 A씨가 비서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역설이 발생한다. 즉 (RS)와 다른 어떤 모임의 비서도 아닌 A씨가 비서연합의 비서로 고용되었다는 사실로부터, A씨는 비서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비서연합의 회원이 된다면, (RS)를 어기게 되어 비서연합의 회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결국 A씨는 비서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면서 회원이 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비서연합의 역설은 피노키오 역설과 매우 유사하다. (PP)처럼, (RS)도 그 자체로는 일관된 규칙인 것처럼 보인다. 또 피노키오가 (PS)를 발화하는 순간 피노키오 역설이 발생하는 것처럼, A씨를 고용하는 순간 비서연합의 모순이 발생한다. 불은 비서연합의 규칙에 대해서도 ‘~에 따르면’이라는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나오는 모순과 비서연합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단순히 허구 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모순의 실재성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엘드리지-스미스는 비서연합의 사례도 의미론적 양진주

¹³⁾ Beall (2009), p. 127.

의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비서연합의 사례는 명백하게 물리세계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의미론적 모순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비서연합의 문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적으로 잘 적용되던 규칙이 어떤 특이한 상황에 부딪혀서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RS)는 일관적인 규칙(원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비일관성을 낳을 수도 있는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인 규칙인 것이다. 피노키오 역설도 마찬가지다. (PP)는 (PS)가 발화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PS)가 발화되는 순간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PP)도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이다.¹⁴⁾

마스가 지적했듯이, 의미론적 술어가 아닌, 일상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사용되는 술어도 특별한 상황에서 그 술어는 부분적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과잉 정의되기도 한다. '~의 그림자이다'라는 술어에 대한 마스의 설명을 살펴보자. 마스는 이 술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직관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X가 그림자를 드리운다면, X에 직접적으로 비춰지는 빛이 있다.
- ② X는 불투명물체를 투과해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다.
- ③ 하나의 그림자의 모든 부분은 자체로 그림자이다.

14)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어떤 문장이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장의 일관성이란 논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습에 의존하지 않는데, '잠재적 비일관성'은 세계의 모습에 의존하는 개념이고 이는 표준적인 '일관성'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PP)와 (PS) 각각은 참인 가능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명제이지만, (PP)와 (PS)가 동시에 참이 되는 가능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의 그림자이다’는 술어를 만족하는 대상은 위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제 한쪽 벽에 햇빛을 받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헛간과 그 헛간의 그림자 진 부분에 한 마리 새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헛간의 그림자에는 만약 그 새가 햇빛을 직접 받았다면 그림자를 드리웠을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헛간의 그림자인가, 새의 그림자인가? ①에 의해서 그 부분은 새의 그림자일 수 없고, ② 때문에 헛간의 그림자일 수 없다. 그런데 ③에 의해서 그 부분은 그림자임에 분명하고, 그것이 그림자라면 새의 그림자이거나 헛간의 그림자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새의 그림자도 헛간의 그림자도 아니다. 결국 그 부분은 그림자이면서 그림자가 아니게 된다. 물론 헛간과 헛간을 비추는 햇빛, 그리고 그 주위를 나는 새로 구성된 세계에는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¹⁵⁾

이상의 사실은 의미론적 역설을 낳는 진리에 관한 규칙이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임을 인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이다’는 진리술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RT) 한 문장이 참이라는 것은 그 문장에 의해서 사실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실제로 사실이고,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이다.

그런데 (RT)가 일상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적용되지만, 거짓말쟁이 문장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적용할 경우 비일관성을 낳는다. 따라서 (RT)도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인 규칙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피노키오의 이야기의 (PP)는 그 자체로는 일관적인 것처럼 보이

15) 마스는 축구 경기에서 ‘~골이다’는 술어는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술어일 수 있음을 논증한다. 그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세계를 일상언어로 기술할 때 모순이 등장하고 따라서 그러한 모순을 허용하는 논리체계로서 의미론적 초일관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Mares (2004), pp. 266-268.

지만, 피노키오가 (PS)를 발화하는 것과 같은 특이한 경험적 상황에서 모순을 낳을 수 있는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비서연합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RS)가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험적 상황이 발생할 때 모순을 낳는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진단을 얻을 수 있다. 즉 진리 술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진리 규칙 (RT)가 일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쟁이 문장과 같은 매우 특이한 문장에 적용될 때 모순을 낳기 때문에 그것도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인 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¹⁶⁾

이러한 진단으로부터 우리는 진리에 관한 직관적 사실을 유지하면서 어떤 모순이나 역설도 낳지 않는 진리개념을 구성하려는 진리 일관성주의자들의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RT)의 비일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의미론적 역설을 해결하려는 일관성주의자들의 시도는, 피노키오 역설을 (PP)의 비일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나, 비서연

16) 심사위원 중 한 분은 (PP)는 규칙이 아니며 더구나 의미론적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피노키오의 역설을 의미론적 역설로 간주할 수 없고, 엘드리지-스미스도 위 역설을 의미론적 역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선 (PP)를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보자. 그 심사위원은 “(PP)는 ‘거짓말을 한다’나 ‘커진다’는 술어를 어떻게 적용할지 규정하는 규칙이 전혀 아니다. (...) 규칙이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어떤 것이 규칙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 (...)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PP)는 어떤 통제가능한 우리의 행위를 기술하는 문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PP)는 피노키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도덕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할 경우 코가 커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경고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의미론적 규칙으로부터 모순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론적 역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의미론적 역설을 지나치게 강하게 해석해서 나온 주장 같다. 또 엘드리지-스미스는 명백하게 피노키오의 역설을 의미론적 역설 중 하나인 거짓말쟁이 역설의 한 버전이라고 말한다. (Eldridge-Smith (2012), p. 752).

합의 문제를 (RS)를 일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규칙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처럼 무망한 것이다.

4. 맺음말

엘드리지-스미스가 정확히 지적하는 것처럼, 피노키오 역설은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기존의 해결방안들, 즉 타르스키 방식의 언어의 위계에 의존하는 방식, 크립케 방식의 초완전성 견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피노키오의 역설이 의미론적 양진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그의 주장은 성공적이지 않다. 그와 유사한 비서연합의 역설이 보여주듯이, 물리세계의 모순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물리세계의 어떤 사태를 설명할 때 어쩔 수 없이 비일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피노키오 역설을 포함한 의미론적 역설은 그 역설을 낳는 어떤 규칙이 비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노키오 역설이 시사하는 것은 바로 일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규칙이 매우 특이한 경험적 상황에 부딪히면 역설을 낳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피노키오 역설에 대한 올바른 진단은 (PP)가 잠재적으로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의미론적 역설에 대한 올바른 진단은 진리 술어에 관한 규칙이 비일관적임을 인정하고, 진리 일관성주의적 해결방안을 포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¹⁷⁾

17) 이 논문의 초고와 수정본을 읽고 예리한 비판을 해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논문의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들의 지적은 필자가 오해했던 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 송하석 (2013), “크립케의 진리론은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논리연구』 26(3), pp. 381-406.
- Beall, J. C. (2000a), “On Truthmakers for Negative Truth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8(2), pp. 264-268.
- Beall, J. C. (2000b), “Is the Observable World Consistent?”,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8(1), pp. 113-118.
- Beall, J. C. (2009), *Spandrels of Tru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all, J. C. (2011), “Dialetheists against Pinocchio”, *Analysis* 71, pp. 689-691.
- Beall, J. C. & M. Colyvan (2001), “Looking for Contradict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9(4), pp. 564-569.
- Chihara, C. (1979), “The Semantic Paradoxes: A Diagnostic Investiga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88(4), pp. 590-618.
- Eldridge-Smith, P. & V. Eldridge-Smith (2010), “The Pinocchio Paradox”, *Analysis* 70, pp. 212-215.
- Eldridge-Smith, P. (2011), “Pinocchio against the Dialetheists”, *Analysis* 71, pp. 306-308.
- Eldridge-Smith, P. (2012), “Pinocchio Beards the Barber”, *Analysis* 72, pp. 749-752.
- Kripke, S. (1975), “Outline of a Theory of Truth”, *Journal of Philosophy* 72, reprinted in R. Martin (1984), pp. 53-81.
- Kroon, F. (2004), “Realism and Dialetheism”, in G. Priest, J. C. Beall, and B. Armour-Garb, (eds.), *The Law of Non-Contradiction*, Oxford: Clarendon Press, pp. 245-263.
- Mares, E. (2004), “Semantic Dialetheism”, in G. Priest, J. C.

- Beall, and B. Armour-Garb, (eds.), *The Law of Non-Contradiction*, Oxford: Clarendon Press, pp. 264-275.
- Martin, R. (1984), *Recent Essays on Truth and the Liar Parado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udlin, T. (2004), *Truth and Paradox: Solving the Ridd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Ajou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hasong@ajou.ac.kr

song1959@hanmail.net

ARTICLE ABSTRACTS

On the Pinocchio Paradox

Hasuk Song

The Pinocchio paradox that Eldridge-Smith suggested is a version of the semantic paradox. But it is unique in the sense that this paradox does not contain a semantic predicate. Tarski's solution which appeals to the hierarchy of language and Kripke's para-completeness which accepts the third truth value cannot solve the Pinocchio paradox. This paper argues that Eldridge-Smith's trial to criticize semantical dialetheism is not successful and that the paradox implies the rule of the truth predicate is inconsistent. That is, the proper diagnosis to this paradox is that the Pinocchio principle should be considered to be potentially inconsistent, which suggests that semantic paradoxes such as the liar paradox arise because the rule of the truth-predicate is inconsistent. The Pinocchio paradox teaches us that consistent view of truth cannot be successful to solve the semantic paradoxes and that we should accept the inconsistent view of truth.

Key Words: Semantic Paradox, Para-consistentism, Semantic Dialetheism, Metaphysical Dialetheism, Inconsistency Theory of Truth, Eldridge-Smith, JC. Beall.